

# 설 가정 예배 순서

**예배선언** ..... 인도자  
"지금부터 마음을 모아 작년 한해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설날 감사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목 상** .....(예배 인도자가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 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함이로다 " 시편 136 : 1~2 , 25~26"

**신앙고백** .....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찬송가 459장** ..... **다같이**  
1.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2. 세상 영광 위해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 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3.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 도** ..... **인도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설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다 감사 드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가정의 주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정을 지키고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 드립니다.  
우리 가문이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 살게 하시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의 우애가 있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범사에 감사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처한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모든 문제들 해결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시 머물러 사는 나그네 인생 길에 마음 빠지지 말게 하시며 올 한해도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며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 시며 오늘 하루의 생활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화목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역대하29:1-11** ..... **자녀중**  
**말 씀** .....**히스기야와 정월 초하루**..... **인도자**

유대력월로 정월은 양력으로 9월을 의미한다. 유대인들은 "로쉬 하사나"로 불리는 설날에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행운의 덕담을 나누며 꿀에 담근 사과나 대추야자, 호박, 사탕무 등을 먹는 풍습이 있다. 이 전에 내려오는 전통은 정월달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정월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1. 정월 초 하루에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을 수리 하였다**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그 문을 닫아 버리고 우상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였다. 우리들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조라면 그 믿음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고, 혹시 믿지 않던지 우상 숭배자라면 히스기야 왕처럼 우상을 쓸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2. 정월 초 하루에 히스기야는 성전보다 먼저 레위인들을 성결케 하였다**  
성전의 문과 기구들을 수리하기 전에 히스기야 왕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먼저 레위인을 성결케 하고 그 다음 전을 성결케 하였다. 설날에 우리의 외모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날이 되어야겠다.

**3. 성소의 깨진 등불을 다시 밝혔다**  
이스라엘이 성소에 등불이 깨진 결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 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깨진 성소의 등불을 다시 밝혔다.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등불이 깨진다면 설날부터라도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겠다. 그 것이 내가 사는 길ियो,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다.

**4. 결론: 정월 초 하루부터 시작한 대대적인 성결 의식은 정월 십육일에 마치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회복 되었다.**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 났다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각자의 마음과 가정에 우상을 척결하는 마음의 성결운동과 깨진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한다

축복기도 ..... 말으니

찬 송 ..... 305장 ..... 다같이

# (통일 405)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

은혜와 사랑  
J. Newton, 1779  
보통으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렘 2:5)  
AMAZING GRACE: 8.6.8.6.  
Traditional American Melody  
Arr. by E. O. Excell, 1900

1.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2. 큰 죄악에서 살건지 신 주께 고마워  
3. 이 제가 내가 산도 주께 의의 은혜로  
4.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께 의의 은혜로

없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처럼 믿음은 그 시공간에 인도해 주시리라  
아 멘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 2019년 설 명절 가정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유인교회

담임목사 : 유현균